

# “법당기도 화실로 옮겼을 뿐, 나의 그림은 한마음의 기도이지요”

## 붓과 선(禪)의 만남 · 수안스님과의 만남

### 편/집/자/주

통도사 축서암에서 선수행과 함께 특유의 선화(禪畵)를 그려 온 수안스님(현 통도사 지비원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주최하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및 불사를 위한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이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운현궁 미술관에서 열린다. 선승의 마음이 화폭에서 여백의 미와 함께 표현되는가 하면 해맑은 동심의 세계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수안스님의 그림 세계. '나의 그림은 기도'라는 수안스님은 이 전시에 수묵화 채색화를 비롯, 금·은분을 사용해 그린 작품들을 다수 선보인다. 수안스님의 작품세계를 직접 들어본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사 선묵전을 여는 수안스님 ▼



▲ 스님께서는 화폭을 대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고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기도는 못 중생들의 보약과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신 스님, 기도를 열심히 하신 신도님을 가까이 대하거나 모시다가 보면 마음 씀씀이가 따스하여 마치 봄볕에 녹아드는 얼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시에 성롭게 하여지이다.' 하는 발언으로 열심히 열심히 정진기도를 드립니다.

간혹 스케치 여행을 할 때는 공책과 연필을 준비하여 버스 안이나 기차 속에서나 대합실에서나 어디든 관계치 않고 반야경을 열심히 쓰고 또 씁니다.

경을 쓰는 행위를 사경기도(寫經祈禱)라 합니다.

### 종교로 철학으로 예술의 승화로

제가 하는 기도는 목탁을 잡았든, 손에 붓을 들었든, 법당에서 하던 기도를 화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 화실이 곧 법당이고 화폭이 선방인 셈이군요. 스님의 기도는 주로 화실에서 이루어지는지요?

- 아닙니다. 처처가 법당이요 선방입니다. 저는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우리 이웃 모두가 한날 한

다시 고쳐 들로 쓴다면 곧 사경 선(寫經禪)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을 사경하는 기본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그림이 곧 종교이며 철학이자 예술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항상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발원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이나 갖는 이 모두가 성불하여지이다. 그리고 그 집 안팎에 부처님 지비방

명이 소복이 쌓여져서 모든 식구가 화복하여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 스님의 그림, 아니 그림이보다 선화라고 해야 맞겠지요. 아무튼 스님의 그림에서는 향내음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과민한 것이지요. - 그린 기도 올릴 때는 향 기를

을 약간 얼굴의 급소에 바르기도 합니다. 향 기름도 있는가 하는 반문을 받기도 합니다만 향유, 향수, 가루향 등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단향 백단향은 인도에서 많이 나며 침향은 월남 캄보디아 등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그림을 그려나 가다 보면 소요되는 것들이 하나, 둘, 구해집니다. 제게는 그런 것들

-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도구와 수단 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됩니다.

스님과 무경 황경환 거사님의 뜻이 같이 그림잔치에 동화되었기 때문 입니다.

▲ 스님의 작품세계를 좋아하는 불자들이 한말씀 하신다면.....

- 우리 이웃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집 안팎에 부처님의 지비방원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 뿐입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보님께 열 두 번 큰 절 올립니다.

영축산 통도사 사문 문수안이 우주를 감싸안듯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경명주사 · 금가루 · 사향 · 녹각 등 희귀한 재료들도 기도를 드리다보면 저절로 입수

이 오랜 기도 중에 구해진 보배입니다.

▲ 다른 재료도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것이겠지요? 어떤 재료를 애용하시는지요?

- 그림 그릴 때 쓰는 물감 재료 또한 신비롭다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경명주사 · 금가루 · 사향 · 녹각 등'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신비롭고 새로운 보배입니다.

▲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작품을 내놓으시는지요?

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맑고 투명한 옥과 같은 기도입니다. 나의 그림은 사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부적이며 좋은 시이기도 합니다.

나의 그림은 우리를 가정의 보배인 어린아이입니다. 아빠, 엄마입니다. 아니 우리들 부처님입니다. 한마음입니다.

이번 전시에 나가는 그림은 더욱 더 알찬 기도의 산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울산 한마음선원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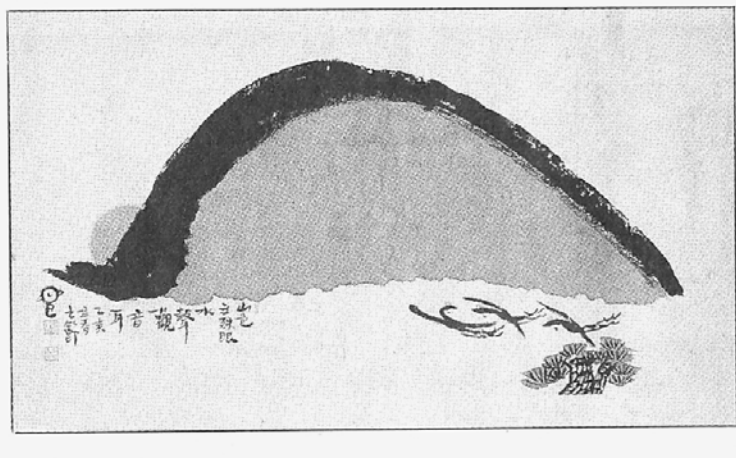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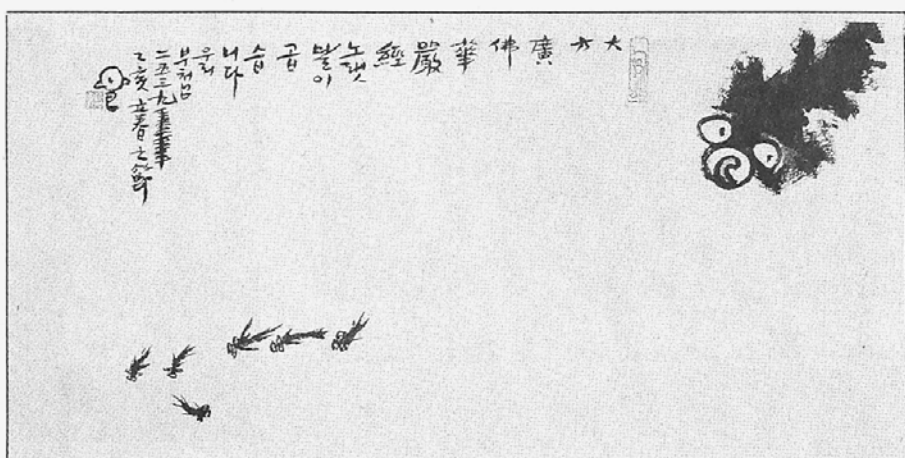
▶ 이번 수안스님의 선묵전에는 경명스님의 「반야심경」, 「심우송」을 비롯, 여초, 월전, 금봉 선생 외에 원명스님의 작품 등이 개인 소장자들의 회사를 출품된다. 특히 「심우송」은 경명스님의 작품 중 단 한 점만 남긴 작품이 기도 하다.

### 작가약력

- 1940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
- 1957년 출가(불교수행)
- 1964년 승려됨
- 1979년 이리 이재민동기 선묵전시회를 부산 여성회관에서 갖다
- 1981년 부산 로타리회관에서 개인전 한·중·일 고승 선묵전에 작품
- 1984년 부산 태워호텔, 울산 그랜드호텔, 대구 중앙회관에서 개인전 부산 선암사 중창 불사 기금마련 전시회 출품
- 1985년 프랑스 한국문화원 초대전 모나코 몬테칼로 현대미술전 출품
- 1986년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개인전 서울 중앙승가대학 건립기금 마련전

- 불광사 유치원 및 포교사 교육센터 건립기금 마련전을 디자인 포장센터(서울)에서 함
- 1987년 수원 불영사 도서관 건립기금 마련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함
- 1988년 서울 목동 청소년회관 개관 기념작품(18m×2m)함 대구 중앙회관에서 개인전
- 1989년 모나코 몬테칼로 현대미술전 출품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전 (프랑스혁명 200주년기념) 모로코 카사블랑카, 라바에서 초대전 독일 서 베를린, 쾰른에서 초대전 서울 프랑스로문화원 초대전 경인미술관 전시

## 미·리·보·는 / 지·상·갤·러·리 / 전·시·회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및 불사를 위한

## 수안 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

### 붓과 선(禪)의 만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는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안 스님의 붓과 어우러진 탈속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마음의 눈이 맑아져 지옥과 극락이 한생각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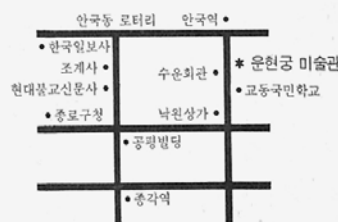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기심을 훌훌 벗어던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상성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기와 불사를 위한 선묵전은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삶 자체를 무거운 짐처럼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독려를, 그 따뜻한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는 정신적인 충만을 동시에 전해 줄 것입니다.

■ 전시기간: 1995년 4월 26일(수요일) ▶ 5월 2일(화요일)

■ 전시장소: 운현궁 미술관

■ 개 회 식: 1995년 4월 26일(수요일) 오후 2시 운현궁 미술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니동 114번지 덕성여자대학교 운현미술관  
■ 전화: (02) 766-7967

■ 주최: 불교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39년 4월  
대한불교  
불교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해안 합장  
신도회장 황경환

협찬: (주)삼주기계 - 대표이사 秋秋旭  
자동차 엔진 및 부품  
자동차 기기 설계 제작 · 가동 진동기 설계 제작  
본사: 울산시 중구 효문동 750-1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